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천국 일꾼은 복음의 미래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2010년 전반기 충현장학생 선발을 위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학생들은 충현장학생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매년 전후반기에 걸쳐 4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막 1:38). 지금도 매주일 20개의 교회학교에서 천국일꾼들이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진짜예요!"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역사가 기대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딤후 4:6). 천국일꾼은 복음의 미래입니다.

"다음 주일(31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의 완성
(로마서 8:28~30)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자'로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롬 5:5-8).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감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을, 같은 '사랑'이란 단어로 쓸 수가 없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동사적인 표현을 아주 가끔 썼을 뿐인데 로마서 8:28~30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쓰고 있다. 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근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다(롬 8:29~30). 세상에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의 목적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그의 목적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나 우리가 만들어 낸 것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 설 자리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기의 것으로 아신 자들이다(엡 1:4).

예수님도 한때 마귀의 권세 앞에 놓여졌다. 그러나 부활 이래로 지금까지 그는 영광 중에 거하신다. 우리도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심을 받고 또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롬 6:5).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어긋난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오르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롬 8:17).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부르심은 복음을 받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든든한 형태로 만족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실존이 된다.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앉아서 모든 성도에게 세워 주시는 면류관, 구원의 완성이 있다.

특히 영화롭게 하심은 약속으로만 남아 있는 완전한 미래에 속한 일이 아니다(롬 8:30).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비록 옛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새 세계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실존한다. 바로 이 사실 자체가 현재의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인 것을 증명한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영원 속에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요 12:28, 13:31-32). 이것을 바라는 바울은 탄식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다(롬 7:24-25; 고전 15: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완결된다. 아멘.



WE WISH TO SEE JESUS

*⁽²⁰⁾Now there were some Greeks among those who were going up to worship at the feast;
⁽²¹⁾these then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of Galilee,
 and began to ask him, saying, "Sir, we wish to see Jesus."
 (John 12:20~21)*

Jesus had to return to Jerusalem to die. During His triumphal entry, many Jewish and even some Gentile people who had come to Jerusalem to celebrate the Passover feast went out to meet Him. These people had recently heard from eyewitnesses how Jesus called Lazarus out of the tomb and raised him from the dead. Among the large crowds still going up to Jerusalem with Jesus were some Greeks. These Greeks found one of Jesus' disciples and asked him if they could meet Jesus, "these then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of Galilee, and began to ask him, saying, 'Sir, we wish to see Jesus'" (Jn. 12:21). Their question is not strange, but its placement in the story is definitely strange. Why is the Bible mentioning these Greeks? What's the meaning of their desire?

The heart cry of all races is to see Jesus. A few Gentiles at Passover longed to know Jesus Christ because they loved God. These Greeks were looking for real truth, and they couldn't find the answers they needed in Greek philosophy or other religious truths and methods. They came to Jerusalem because they were really seeking God through Judaism. They heard about Jesus' miracles. Someone told them how He made the blind see, the lame walk, healed lepers, and even made the dead alive. Their curiosity was high. This Jesus spoke with authority. The Greeks wanted to see Him because they were hoping He could enlighten them. Actually, everyone needs to meet Jesus Christ because they are sinner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Rom. 3:23). Everyone needs to see Jesus to receive eternal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receives salvation, "that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Jesus a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for with the heart a person believes, resulting in righteousness, and with the mouth he confesses, resulting in salvation" (Rom. 10:9-10). The Bible says,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Rom. 10:13).

The heart cries of all people who seek relief through religious ceremony need Jesus. These Greeks were

attending Passover because they were seeking God. Millions of people in the church today participate in religious ceremonies because they want to feel close to God or try to please God. Too many people join the church or take communion for the wrong reasons. There are numerous people baptized who are still lost. Eternal life is not given to anyone through religious rituals. Eternal life contains no human element, nor does it lie within the scope of human achievement,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Jn. 1:13). The Bible clearly tells us,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Jn. 1:12).

The heart cry of all who seek reality in the lives of Christians is to see Jesus. Real believers witness Christ with their life. There are people around you right now who are looking for Jesus. The Greeks came to Philip with their graceful desire. Their question was a very reasonable request that every Christian might be asked. This world needs to see Jesus through you. God's people must face up to this responsibility. All Christians are commanded to be the light of this earth, "Let your light shine before men in such a way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Mt. 5:16). Are you too busy for good works? Are you too busy to glorify God?

As a child of God, who has accepted Jesus Christ as Savior, please shine your light on this earth. Some people will come to you first with their desire to see Jesus, and others you may have to ask. Whichever situation you find yourself in, just direct them to accept Jesus and receive eternal life. Jesus is real! Today's Passover account pictures thousands of people coming to Jerusalem, most of them attending this feast as a ritual, but a few Greek Gentiles actually sought out and saw Jesus Christ. Isn't that wonderful? I hope you will be like Philip. Open your heart and try to accept the individuals that God brings your way. Philip dealt with Greek Gentiles. Who knows what kind of people you will deal with? The will of God is for you to be humble and to love souls without discrimination. Next time someone inquires about the Lord God, say to them, "Do you want to see Jesus?" "I will take you to Him." Amen. 🙏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²⁰⁾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²¹⁾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2:20~21)



김성환 목사

예 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 그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많은 무리 가운데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요 12:21). 그들의 요청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는지 정말로 이상합니다. 왜 성경은 이 헬라인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요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의 부르짖음이 있다

모든 민족의 간절히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내던 몇몇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참 진리를 찾고 있었지만, 그리스 철학이나 다른 종교적 진리와 방법에서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들을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는지 들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은 점점 커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라 믿으며 예수님을 뵈옵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 3:23).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 10:9~10).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 10:13).

종교를 통하여 구원을 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다

종교 예식을 통해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종교 예식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 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이유로 교회에 나오거나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영생은 종교 예식을 통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업적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3).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신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원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와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매우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혹시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며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유월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종교 예식에 참석했을 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만난 사람은 몇몇 헬라인들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맞아들이십시오. 빌립은 헬라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아무런 편견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질문하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제가 당신을 예수님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18

십자가에 죽으심과 장사 지냄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장소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범죄자 사이에 매달리셨다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마가복음에는 '강도' (막 15:27), 요한복음에는 '다른 두 사람' (요 19:18)이라고 기술한 것만 다르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릴 있을 때 몸이 고통스러웠다.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신포도주가 제공된다. 이에 대한 설명도 두 복음서는 비슷하나 요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막 15:36; 요 19:29).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패(物)가 있었다. 이 패에 대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다는 것과 이 말이 당시에 쓰이던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음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였다(요 19:19~20). 또한 이 패에 관련된 종교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대화와 예수님의 옷을 나누 갖는 군인들의 행동도 기록하였다(요 19:21~23). 이에 반해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이고 쓰여진 '죄배'라고 간략하게 기록하였다(막 15:26). 이와 같은 참상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들이 있었다. 마가는 이 여자들이 멀리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술하였다(막 15:40).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곁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세히 기록하였다(요 19:25~27).

예수님의 사행이 확정되어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시간에 대해 요한복음은 '오후'(정오)라고 기록하였다(요 19:14). 정리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잡혀서서(요 18:28) 정오에 재판받으시고(요 19:14) 날이 저물 즈음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요

19:31,42). 이에 반해 마가복음은 새벽에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서(막 15:25)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기록하였으므로(유대시간 제1시, 마 27:46,57; 마 15:34,42; 눅 23:44,54) 요한복음에 언급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편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요 19:28~30, 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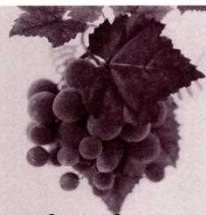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지내는 것에 대해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기록하였다(막 15:43~45). 이에 반해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은 조용히 빌라도에게 요구했으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지냈다는 것과 니고데모가 한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요 19:38~41). 이와 같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마가복음은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한 반면 요한은 사건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두 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하였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초점은 영원한 세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유한한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이 세계의 삶에서 고난보다는 영광과 안락함을 원한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매번 우상에 빠졌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한것은 어찌며,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자. 마가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잊지 말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열렸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선이 영원한 세계에 고정되어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부예배 메시지(2010. 1. 20)

1.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요 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12)
3. 나는 뿌이다(요 10:7~10)
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요 11:25~26)
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요 14:6)



6. 나는 참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1~8)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떠난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요 14:1~3).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실 것(요 14:16,26)과 참 평안(요 14:27)을 약속하셨다. 이윽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요 15:1). 예수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습관이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진자는...', '진실로 진실로...', '참...'이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셨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은 '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명료하게 밝히셨다.

●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시다(요 15:1).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된 우리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요 15:2).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지만 종교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죄우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연구했지만 정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는 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요 1:9).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느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요 6:32).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일시적인 만나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충하는 참 떡임을 가르쳐 주셨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요 14:6).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다(요 10:10).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 참 포도나무는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꾼다. 따라서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요 15:1~3). 그런데 농부가 보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이다. 가지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된다(요 15:4). 이때 열매는 맺힌다(갈 5:22~23). 생명나무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은 새 생명을 얻는다(골 11:30).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다.

● 참 포도나무는 가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요 15:6).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핍박한다(요 16:1~3).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요 15:8).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만 중시하자.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가꾸어 열매 맺도록 하실 것이다. "진실로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석 달 동안 주님께서 선교팀을 구성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선교지로 향했다. 우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을 택하여 시골에서도 한 시간 이상 더 들어갔다. 처음으로 바라보는 선교지는 말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다. 쓰러질 듯한 움막집에서 벌거벗은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먹으며 오물로 밥먹이 된 가족들과 뒤엉켜 살고 있었다. '저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도 많은 생명들을 쳐서마다 예비해 놓으셨다.

오지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는 황금빛을 발하는 사원이 있고, 그 앞에는 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깨만 눈을 감박거리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양해를 구하여 아이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아 세웠다. 검은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과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찬양을 목이 터져라 반복하여 가르쳤다. 모두 따라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앎은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 사역을 하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사역지의 날씨, 거리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 들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 곡식을 찧는 가족들,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학생들... 수많은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일일이 말씀을 읽게 하며 영접기도를 같이 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어떤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짚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떤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앎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매시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박정운(집사, 20교구)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함께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성령님께 선교지의 한 영혼을 위해 팀원 모두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첫날, 사역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쉬지 않고 찬송과 기도를 헌신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에 빈 집 같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7~8명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였습니다. 신이 나서 훈련받은 대로 전도지를 주고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기쁨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4일째에는 전도 방해자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울며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하실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5일째 되는 날에는 늑대와 같은 큰 개의 공격도 막아 주시고 또 변화가 심한 날씨 속에 모래 먼지가 섞인 회오리바람과 먹구름도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한 영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임은애(집사, 1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4개 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월 18일(월) ~ 1월 26일(화)	19교구 1팀	이수예	1월 22일(금) ~ 1월 30일(토)	청년1부 1팀	정인진
1월 21일(목) ~ 1월 29일(금)	7교구 1팀	송한현	1월 22일(금) ~ 1월 30일(토)	2교구 1팀	홍순길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6일(화) ~ 2월 2일(화)	고동부 1팀	구승희
1월 26일(화) ~ 2월 2일(화)	고동부 2팀	윤숙희

'참빛아나라교회'를 세우기까지(1)

보혈의 역사, 순종

낮은 땅, 물결은 온통 두려움이고 무서움뿐이었다. 어느 날 공포 속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방에서 나와 큰 길을 따라 무작정 강다강이 접어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크게 세 번 불고, 계속 외쳤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나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맘에 여유도 생겼다. 이후부터 주님은 나에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들과 함께 살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선교지 장애인들을 총괄하는 지도자를 만난 것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였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기도모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의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은 계속되었다. 현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한국어 교사로 일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그것을 시작으로 나는 학교에 100명이 넘는 현지선생님들을 위한 신우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물론 3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다. 특히 교회에서 지원받은 <총현의 만나>와 <주간총현>은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모임을 갖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현지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로 하루의 삶이 무척 분주했다. 영적인 열매로 인한 큰 기쁨은 있었지만 건조한 교원지대의 흙먼지와 흙바닥은 나의 육신을 약하게 하였다. 그래서 나의 마음 한 편에서는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과 많은 학교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만족하였고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계속 도전의 마음을 주셨다. <다음 조에 계속>

신재균(권사, 현지인교회사역자)



간증과 나눔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를 씻기다가 아이의 귀로 물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이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뜻이 다 찼잖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 말에 웃음을 짓고는 “아미! 미안해~, 정말 하나님 뜻이 다 찼었구나라” 다음부터는 조심하랬노라고 약속하며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의 말이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이 얌전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굳게 세워질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유치원 버스를 타러 가는 길목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렴! 예수님을 의롭게 헤드리면 안 돼! 알겠지?” 아이는 알았다는 듯이 “음.” 하며 종종 걸음으로 버스에 올라타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고 싶습니다.

황윤희(집사, 22교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듬해 상경하여 고등학교를 다니며 어른들에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저는 수차례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호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계속해서 제 안에 영적 교만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13년 동안 들은 복음은 항상 제가 죄인 중의 과소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오늘의 삶이 행복합니다(갈 2:20). 그리고 저는 바울처럼 매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두 세계를 살아가는 제 마음에는 절대 행복과 순종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봉향인 천국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저는 항상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짐승 같습니. 껴어 준비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강진택(은퇴안수집사, 21교구)

신앙의 외눈이

외눈 마을에서는 외눈이 이상한 줄 모른다. 오랫동안 율법과 습관 속에 갇혀서 마치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 줄 알고 지내온 나는 신앙의 외눈이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장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 일에 초점을 두었던 제자들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참으로 인정하기 싫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을 낱알이 지적하며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은 때로 듣기에 민망하였으나 죄로 인해 비참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로 인해 무릎 굽게 하셨다. 매순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자기부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연약한 죄인들을 골라주 사랑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 불꽃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변정대(안수집사, 10교구)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저는 무지한 자요. 발발자로 감히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찼고, 마음이 강박하여 눈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싫어하고, 해마다 집을 치러 다녔고, 부적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또한 아내가 쓰러 성경 필사본을 찢어 버리고 하나님이나 어디 있는 나며 열기를 부렸던 자였습니다. 교회에 가게 된 것도 돈때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천주교회에 다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이사가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암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암송을 하던 중 말씀이 제 마음을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중 섰포여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5월 28일 간기 1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3번 받으며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에 안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때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나타낸 영광과 축히 비교할 수 없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줄아 말씀을 읽으며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나 같이 미련하고 악독한 자를 택하여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며 남성구역장의 직분과 장년부 교과서 설교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학식도 없고 무지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곧 4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하며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므로 나 자신을 늘 부인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고후 5:17).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최명호(집사, 13교구)

무지한 자. 발발자

청지기칼럼

내 기쁨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함에서 오는 무지가 아니라 '나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정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벧전 5:5)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의 감동이 있었으나 곧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깨어지지 않고 말 뿐인, 변화되지 않는 여전한 내 모습. 마음으로, 행실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됨을 부인했던 무지한 자임을 보게 되었다. 늘 입으로는 죄인이라 시인하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철저한 회개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고 또한 그 무지를 핑계 삼아 안주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셨다.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품으시는 주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발자취를 남기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유하는 나의 몸과 나의 말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 교만과 외식에 빠져 살아가는 이 죄인, 아니 내가 죄인임조차 깨닫지 못한 채 늘 주님보다는 나의 안위와 내 만족 그리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신다. "의인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인인데도 말이다. 주는 내 기쁨의 근원, 찬양할 이유, 감사의 제목이시다. "주님, 내 맘 가운데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내 입술의 찬양이 주님께만 드리는 공교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화되지 못하고 말뿐인 무지한 나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홍희정(집사, 평드벨전주대)



아름다운 하모니, 플룻앙상블

지난 주일 2부예배 전,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는 플룻앙상블 단원들을 만났다. 임마누엘 찬양대와 베넬 찬양대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로 봉사하고 있는 단원들로 조직된 플룻앙상블은 어려움도 많았으나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여 말씀만을 붙드는 시간 속에서 지금과 같은 연주단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플룻 전공자들과 비전공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플루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연주단은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보다 함께 모여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찬양을 준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준비하는 플룻앙상블의 모습은 마치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같았다. 짧은 만남을 마치고, 플루트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이게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찬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찬양대가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이들도 플루트이란 악기를 통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은혜로웠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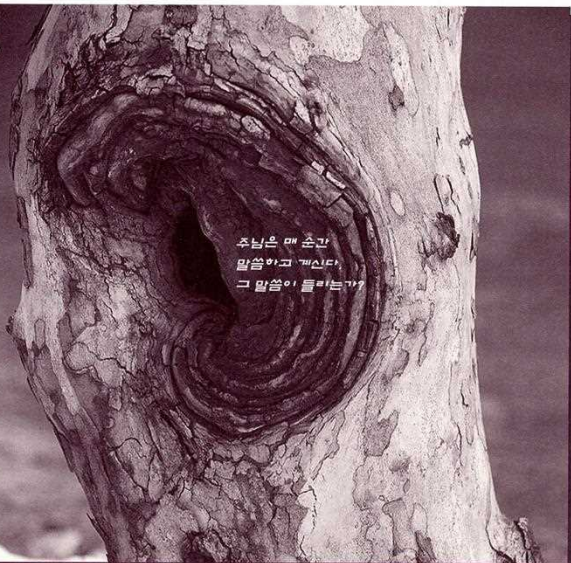
취재/현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15)



주님은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들리는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7	황의연	1	교역자	
88	조수진	1	교역자	
89	황유하	1	초등1부	
90	황선하	1	초등1부	
91	곽연하	2	청년2부	
92	박지훈	1	교역자	
93	이하경	1	교역자	
94	김혜영	13	장년1부	
95	서은아	13	청년1부	박홍규(13)
96	정영수	22	청년1부	김연수(23)
97	김 남	17	장년1부	이옥자(17)
98	장분선	17	청년2부	이옥자(17)
99	정주실	9	청년2부	조수진(24)
100	전현화	25	외선부	김대웅(13)
101	오성규	21	장년2부	오영선(10)
102	진성훈	2	초등2부	함방자(4)
103	진서희	2	초등1부	함방자(4)
104	김예스리	22	청년1부	
105	김정은	1	장년2부	
106	이진영	14	청년1부	
107	한도영	1	청년1부	신동수(4)
108	오수경	11	장년3부	여갑석(11)
109	안혜진	23	청년1부	안연식(18)
110	이화정	2	청년1부	
111	김수진	1	대학부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